

광주·전남 친일파 40명 재산환수

‘곡창지대 호남’ 친일 대가 토지 취득 많아

조사위, 전국 400여명 18일부터 조사 착수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협력한 광주·전남지역 40여 명을 비롯 모두 400여 명의 친일파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총무로 국공립 당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 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당시 전국 최고 곡창으로서 일제의 미곡 수탈이 집중된 지역이었던 만큼 일제 수탈에 협조했던 친일파들이 상당수에 이르며, 이번 직권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00여 명 가운데 30~40여 명이 이 지역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제대로 된 청산절차 없이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가동되게 됐다.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 재산의 가능성이 농후하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조사위는 최근 공식 출범에 앞서 예비조사를 벌여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토지들은 법원에서 검찰의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친일파 후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조사위는 현재 이 토지들의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완용이 소유한 땅 가운데 전남 목포(당시 목포부)의 전담 수심만 평과 진도군의 임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일파 소유의 재산이 상당수 광주·전남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위는 또 ‘친일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일파 후손 소유지로 의심되며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친일문제를 다루는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영(49) 총장은 “광주·전남은 국내 최대의 곡창으로서 일제 당시 미곡수탈이 집중됐던 곳”이라며 “관리와 지주를 비롯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땅을 획득한 친일파들이 30~4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총정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안 회산방죽 ‘백련 세상’

폭염이 계속된 13일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회산 방죽지를 찾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10만평의 연못을 뒤덮은 푸른 연잎과 활짝 핀 연꽃에 취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된 ‘무안백련대축제’는 8월의 연풍연개(蓮風蓮歌)란 주제로 15일까지 계속된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광양제철 개발 신공법 HPF 車 강판 年 수조원 연료 절감

(핫 프레스 포밍)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허남석)가 지난주 개발에 성공한 핫 프레스 포밍(Hot Press Fforming·HPF) 강판이 고강도·경량화를 요구하는 자동차 강판시장에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HPF 강판은 기존 제품보다 강도가 4~5배 인데다 무게는 40%까지 줄어드는 ‘꿈의 소재’로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양산을 두달 앞두고 벌써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현재는 범퍼 빔과 도어 빔, 차체 수직 기둥과 수평지지대 등 고강도를 요구하는 4개 부위 제품만 생산되고 있으나 쓰임새를 넓혀 나갈 경우 차체의 경량화→고강도화→연비절감 등으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의 성능에 날개를 달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령 2천cc급 승용차 기준으로 할 때 기존 범퍼 빔의 무게는 9.36kg인 반면 HPF 부품을 달 경우 5.86kg으로 3.5kg(37%)이 줄어든다. 반면 충돌안전성은 11% 높아진다. 도어빔과 수직기둥·수평 지지대 경

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향후 HPF소재 적용을 확대할 경우 연간 수조원의 연료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PF 공법은 광양제철소가 국내에서는 처음,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도입한 기술로 이 공법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4년간 연구를 거쳐 지난해 2월 신소재 강판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HPF제품은 제조공정 단축, 차체 경량화, 제조원가 절감 등 자동차메이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제품”이라며 “내년부터 내수와 함께 해외시장을 겨냥, 연간 50만대의 차량에 100만개의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양=김준호기자 kco@

우도 25~30%의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들 4개 부위만 교체해도 약 12.5kg이 가벼워진다. 1천443kg인 2000cc소나타 승용차의 경우 1천430.5kg으로 중량이 줄게 된다. 자동차 업계는 통상 차량무게가 1% 감소할 경우 0.5%의 연비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공식을 적용할때 HPF 강재의 용도를 넓힐 경우 연비는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체 경량화...연비 획기적 개선 “내년부터 연 50만대 부품 공급”

알림

‘2006 조선대 시사판마 원정대’ 히말라야 오른다

개교 60주년 기념...내일 현지 파견

조선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15일 중국경 허베이성 핑의 히말라야 기봉 시사판마(Shisha Pangma: 8,127m)에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원정대는 광주·전남을 넘어지고자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전 정신과 패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996년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신광철 원정대장을 비롯한 5명의 대원들은 오는 9월 28일까지 45일동안 “신의 기차” 시사판마 남쪽에 “님도 산악인”의 투혼을 새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2006 조선대 시사판마 원정대 (단장 권희권 교수)의 야심찬 도전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원정대 홈페이지 http://www.cuzac.or.kr/조선대 산악회

- 주최: 조선대학교, 조선대 총동맹회
- 주관: 조선대 산악회, 조선대 산악808B
- 후원: 광주일보

이스라엘-레바논 오늘부터 휴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배포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4일 오전 5시(그리니치 표준시·한국시간 오후 2시)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난 총장은 이날 “양국의 지도자들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

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은 전투행위를 당장 멈추고 11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 부응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과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레바논 내각은 12일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를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연합뉴스)

후원대학 장학 500만 원 지원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설립연도 1982년 ▶ 1,100여명 ▶ 1,000여명 ▶ 1,000여명

새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 설립연도 1988년 ▶ 1,000여명 ▶ 1,000여명 ▶ 1,000여명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설립연도 1970년 ▶ 1,000여명 ▶ 1,000여명 ▶ 1,000여명



활력이 행복!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비타민. 페콤씨! 하루 2알 페콤씨와 함께 활력이 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Be~Happy, 페콤씨!

아침·저녁
하루 2알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 페콤씨

